

“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마”… 집값 담합 입주민 검찰 송치

카카오톡방서 시세 조작 등 혐의
서울시 “온라인 담합 단속 강화”
최대 2억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아래로 매물을 내놓지 말도록 유도하고, 낮은 가격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비난한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의 모습.

/뉴스시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특정 매물을 두고 “〇〇억원 이상이 정상이다”, “국민 평형은 최하 〇〇억원 이상으로 가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했다.

또 자신이 주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들을 ‘가두

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며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두리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가두리 멘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등의 글도 여러 차례 게시했다.

A씨는 매도인의 의뢰를 받아 정상적으로 광고된 매물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하위 매물이라고 주장하고, “하향으

로 꺾으려는 물건”이라고 표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행위가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

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나 관련 피해를 발견한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속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 담합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인 만큼 고강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교육부, 대규모 초과모집 대학에 칼 빼든다

과실 초과모집 땀 담당자 징계 요구
필요시 수사 의뢰·재정 패널티 검토

교육부가 최근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사례가 잇따르자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앞으로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최근 순천향대의예과에서 모집계획보다 11명을 초과 선발하는 등 대학의 초과모집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과모집은 당해 연도뿐 아니라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으로 이어져 다른 학년도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동점자 발생에 따른 초과모집은 대학별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에서 동일한 평가 결과를 받은 지원자가 발생할 경우 나타난다. 2026학년도에는 지원 건수가 전년 397만6875건에서 439만2402건으로 10.4% 증가하면서 동점자에 따른 초과모집도 늘어난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은 총원할격자 선발 과정의 업무 착오나 정원의 특별전형 모집인원 산정 과정에서의 오류 등이 주요 원인이다.

2026학년도에는 대학 과실로 5명 이상 초과모집이 발생한 대학으로 순천향대(11명), 김천대(8명), 중원대(24명)가 확인됐다. 이 밖에도 10개 대학에서 13명이 대학 과실로 초과 선발됐다.

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을 개정해 대학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에는 동점자 처리기준과 전형 운영 관리체계에 대한 자체 점검도 권고한다.

아울러 2027학년도부터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해당 대학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돼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북도, 1433억 투입 스마트 APC 확대

농산물 유통체계 디지털 전환

경북도가 AI와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확대하며 농산물 유통체계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2023년부터 기존 APC를 스마트 APC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6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화를 진행 중이다. 도내 APC 133개소 가운데 88개소는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시설로, 인력 부족과 유통비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마트 APC는 AI가 농산물의 색상·당도·외형 등을 분석하고 자동화 설비가 선별·포장·물류를 수행하는 미래형 산지유통 시설이다.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품질 경쟁력 강화와 유통비 절감, 소비자

신뢰 향상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앞으로 노후 APC를 스마트 APC로 전환하고 AI 기반 수급·가격 예측, 온라인도매시장 연계,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생산부터 선별, 출하, 판매까지 연결되는 미래형 산지유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사업비 1433억원을 투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 506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스마트 APC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생산부터 판매까지 데이터로 연결되는 산지유통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유통 경쟁력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2일 용인시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이상일 시장이 제3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폐막선언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흥행·감동 다 잡은 ‘용인 대학연극제’ 성료

경희대 등 ‘베스트5’ 선정

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용인시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국내 유일의 체류형 대학생 연극 축제인 ‘제3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폐막식을 개최했다.

올해 연극제에는 전국 49개 대학팀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4개 팀이 용인 곳곳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폐막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본선 진출 대학 연극인, 연극협회 관계자, 심사위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축제의

대미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현순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정재호 한국연출가협회 이사장, 한원식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장 등 연극계 인사들도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폐막식은 참가자들이 합숙기간 준비한 합동 길놀이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용인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함께 생활하며 공연을 준비한 과정과 무대 뒤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상영돼 감동을 더했다.

시상식에서는 경희대, 중앙대, 동아방송대, 인천대, 경성대 등 5개 팀이 ‘베스트5’에 선정됐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부산시-부산관광공사 해녀와 해양문화 체험

내달까지 20회 운영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영도 감지해변에서 해녀와 함께하는 해양문화 체험 프로그램 ‘해녀와 함께 바다를 배우다’를 8월 4일부터 9월까지 20회 연다.

프로그램은 영도 해녀가 직접 참여해 삶과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참가자와 함께 스노클링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안전요원의 지도로 스노클링을 하며 해양생물을 관찰하고, 체험 후 K-FOOD도 맛본다. 방문객이 적은 평일 상권을 살리기 위해 8월은 평일 위주로, 9월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화차당 15명씩 총 20회다. 참가 대상은 만 10세 이상이며 참가비는 1인 3만원으로 해녀 문화 해설과 스노클링 장비·안전 교육, K-FOOD가 포함된다. 신청은 부산 마린파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국민대, 팔레스타인 AI 인재 30명 육성

KOICA와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

팔레스타인 인재 30명이 국내에서 인공지능(AI) 박사과정 교육을 받고, 귀국 후 현지 연구개발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산학협력단과 글로벌개발협력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팔레스타인 AI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AI Ph.D.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KOICA의 팔레스타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기술 R&D 역량강화 사업의 인재 양성 과정이다. 팔레스타인 우수 인재 30명을 선발해 국민대 AI-SW대학원 박사과정 교육과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연수생들은 AI 핵심기술과 산업·공공 분야 응용기술을 연구한다. 연구 주제는 팔레스타인의 주요 현안과 연계해 정하며, 연구 결과가 현지 문제 해결과 디지털 전환에 활용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사과정 동안 국내 연구진과의 공동연



팔레스타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기술 R&D 역량강화 사업 착수회의.

/국민대

구, 산학협력 프로젝트, 인턴십, 국제학술대회 발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연구 역량과 현장 문제 해결 능력, 프로젝트 기획·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학위 취득 이후 연수생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를 연결하는 연구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설계됐다. 연구개발 성과가 제품과 서비스,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국민대는 이번 사업을 학교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해 AI 교육·연구 역량을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